

동구, 내달 2~9일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축하무대 개최

오는 10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첫 번째 축하공연은 2일 열릴 MBC 난장 콘서트로 한류의 대표 주자로 꼽

히는 '악단광칠(ADG7)' 등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 설 '악단광칠'은 글래스톤베리, 로스킬데, NPR타이니데스크, 월드뮤직엑스포2019 등에서 주목받아온 밴드로 전통음악에 기반한 현대적 감성을 담은 음악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이어 핀란드와 아프리카 베냉 출신 뮤지션들로 구성된 아프로비트의 펑크밴드 '헬싱키 코도누 앙상블

'이 무대를 잇는다. 해외 20여 개국에서 공연해온 밴드의 공연장은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는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지는 메인 축하공연에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 홍보대사이기도 한 싱어송라이터 '하림'이 광주를 찾는다. 가을 밤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감성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버스킹월드컵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10월 7일과 9일의 공연

에서는 출연 소식만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대표 뮤지션 '로르노아와 이상진 밴드'를 만날 수 있다.

카메룬 출신으로 가창력과 춤,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아온 로르노아와 신촌 블루스·동물원·봄여름가을겨울에서 연주자로 활동해온 이상진 밴드의 합동공연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벌써부터 국내·외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이유빈 기자

남구, 재난시 '3-24H 시스템' 가동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태풍과 폭한 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3시간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3-24H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남구에 따르면 '3-24H 시스템'은 가족간 지원 체계가 미약한 1인 가구 중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혹서기 및 혹한기 시기에 각종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복지 지원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은 위기 가구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복지 취약가구는 관내에 약 3천16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이들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내 17개동 민간단체 운영 인력과 각 가구당 결연을 맺어 안부 확인 및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취약계층 가구와 결연

을 맺은 주민은 577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위기가구 발굴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979봉사단, 복지통장 등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다. 결연을 맺은 주민들은 취약계층 주민 1천232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1인당 평균 2~3명의 주민과 결연을 맺어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24H 시스템'은 혹한기 시기에 폭설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이다. 또 태풍과 혹서기 시기에도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모의 시험가동을 통해 사전점검을 마친 상태이다"며 "추후 이상기후로 특보 상황이 발령될 경우 시스템을 가동해 일상생활의 문제 여부 등을 단시간에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태 기자

서구, 독감 무료 예방접종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0일부터 2023-2024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접종 시기를 분산했으며,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접종은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1회가 지원되며 ▲10월 5일(생후 6개월~13세 1회 접종 대상), 9월 20일(생후 6개월~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 ▲10월 5일(임신부) ▲10월 11일(75세이상) ▲10월 16일(70~74세) ▲10월 19일(65~69세)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서구는 만 50~64세 장애인·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6천460여 명의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서 11월 1일~12월 9일 동안 서구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한다.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별 접종기간을 분리하는 만큼, 해당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을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광산시민 1% 응급처치사'를 양성한다. 광산구 시민 1% 이상이 전문적인 응급처치 역량을 갖추도록 해 화재, 자연 재난, 대형사고 등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시민 안전 지키는 응급처치 교육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광산시민 1% 응급처치사'를 양성한다.

광산구 시민 1% 이상이 전문적인 응급처치 역량을 갖추도록 해 화재, 자연 재난, 대형사고 등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9일부터 한 달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강사진이 시민과 공직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 강의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실습을 병행해 실시한다.

총 4시간의 교육을 마친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지급되며, 이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난 8월 대

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모집부터 응급처치 교육 등 사업 전반을 협업해 추진해 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시민 1% 응급처치사 양성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자치센터 간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은 북구 28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시 분야는 12개 동이, 공연 분야는 21개 동이 참여한다.

먼저 작품전시회는 오는 19일 금봉미술관에서 개막해 내달 3일까지 제1~3전시실에서 민화, 서예, 종이공예 등 14개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220여 점의 출품작이 전시된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북구종합체육관에서 북구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댄스스포츠, 고전무용, 국악, 사물놀이 등 23개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준비한 흥겨운 공연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문인 구청장은 "바쁜 와중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북구주민자치협의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공정과 상식